



◇ 광덕스님이 작사한 찬불가 21곡 발표회를 갖는 불광사 마하보디합창단.

창작국악교성곡 들을 기희

광덕스님 작사 찬불가 21곡 발표 불광사합창단-중앙국악관현악단 12월5일 리틀엔젤스회관



◇ 광덕스님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어, 보현행원으로 불국 이루어.” 92년 초연된 창작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 (박범훈 작곡)은 불교음악계에 창작교성곡 붐을 일으키고 불교음악대형 이벤트화시킬 수 있다는 선례가 된 대곡이다. 이 곡을 위시해 창작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과 찬불가 ‘두손 모아 합장하옵고’ ‘연꽃피는 날’ ‘보디스바하’ ‘열반의 노래’ 등은 모두 광덕스님(서울 불광사 법주)이 작사했다. 광덕스님이 작사한 찬불가 21곡 모두가 발표되는 음악회가 12월 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동 리틀엔젤스회관에서 열린다.

본석 연주되고 탑돌이가 펼쳐진다. 광덕스님은 한국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법회의 한글화와 도심포교에 진력해 오며 정법과 신행을 위해서는 음악의 중요성에 주목, 불광사 마하보디합창단과 바라밀다합창단을 창립해 새로운 불교음악 시도에 앞장서 왔다. 찬불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광덕스님은 따라서 부처님말씀을 노랫말로 읊거나 작사에도 심혈을 기울여, 쉽고 고운 한글로 이루어진 찬불가 가사를 만들어 부르기에 흥겨운 것은 물론 불자들의 신행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루동열세의 지휘로 200여 불광사 마하보디 합창단과 중앙국악관현악단의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 1부에서는 ‘임태양위 태양’ 등 17곡이, 2부에서는 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과 ‘보현행원송’이 각 25

이번 음악회는 찬불가를 통한 광덕스님의 전법외지를 다 시한번 되새기는 기쁨이 되며, 불광사주지 지암스님과 국악인 최진숙씨 등도 출연한다. (02)413-6060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음악 명상여행 떠나요”

인도명상음악 CD 시리즈 발표 김창수씨

“인도명상음악은 명상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 자체를 소리로 들려주는 소리와 함께 떠나는 명상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소리의 조화를 느끼다 보면 어느새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지요.”

5년전 티벳불교예불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던 김창수(38)씨가 이번엔 8개로 이루어진 인도명상음악 CD를 출간했다. 4년 전 기획을 바탕으로 아예 인도 현지에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유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담고 직접 연주한 곡도 수록했다. 인도미학에 근거한 명상적 주제가 담긴 이 음반들은 경건한 명상의 분위기를 풍기는 비스마(경이로움), 구도의 길 떠나는 명상가의 발걸음 연상케 하는 사

“범패의 짓소리 홀소리 인도전통 성악과 유사”

드나(구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 음악에 매료된 김씨는 88년 인도로 건너가 바라나스 힌두대학 공연예술대학에서 인도 전통악기인 파탈라를 전공했다. “인도의 음악은 악보가 없고 전통음계인 라그(Rag)에 의해 연주됩니다. 5백여개의 라그가 실제 무대에 올려지는데 연주하는 사람 개인의 철학과 사상이 그대로 녹아들 수 있는 음계지요. 범패의 짓소리 홀소리도 인도 전통 성악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김씨는 인도 전통음악에서 부처님의 자비심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서울대에서 후학들에게 인도음악을 강의하는 김창수씨는 “장애인을 위해 뭔가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이 예술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포교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김창수씨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초의선사 성상 봉안사업 전개

초의문화재단, 생가일지암·수종사 등에



◇ 초의선사 상.

스님의 상을 스님과 인연있는 곳에 차례로 봉안해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초의문화재단 이사장 윤운스님은 초의선사 성상(聖像)봉안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지난해 5월 초의선사의 달에 서울 인사동 초의선원에 실물 크기의 초의선사 목각화상(인간문화재 박찬수씨 제작)을 봉안했고 내년에는 초의선사의 탄생지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봉안할 예정이다. 스님의 상은 태평양 박물관

에 봉안되어 있는 영정을 토대로 목각으로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초의재단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초의선사 성상조성을 위한 기금마련’ 모연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02)732-2317 윤운스님은 “일지암과 수종사 등 스님이 거처한 곳은 불멸 전국의 다원 등에도 초의스님 성상을 봉안하여 어디서든지 친근하게 스님을 대하며 차생환을 해 전사의 정신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51>

오르는 달에 경을 읽다

數盡烏竹入斜簾 (수종오죽입사침) 두어 떨기 오죽이 기운 처마에 드니
一室清涼顏不厭 (일실청량파불렴) 방안이 쓸량해도 청렴할 수는 없구나
每待高枝上新月 (매대고지상신월) 한시 높은 가지에 새 달 뜨기 기다려
閑憑經几誦楞嚴 (한빙경계송능엄) 한가로이 경상에 기대어 능엄경 독송다.

해죽(惠竹)대사의 <산거장영(山居雜詠)>이다. 대사는 <철선소초(鐵船小艸)>라는 시집을 남기고 있어 거기에는 1백여수의 시만이 수록되어 있다. 그 외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상고하기가 어렵다.

대사의 시는 스님이라는 신분 속에서 불교적 교리를 부각시키는 작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시 시인의 서정이나 서정적 시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사대부나 마한가지로 일상생활의 한 도구로 작사의 여가를 가졌던 것이다.

스님들의 시집에서 산에 사는 이야기가 책 머리에 실리는 것이 흔한 일이다. 위시도 시집의 맨 앞에 실려 있다. 어쩌면 자신들이 입산하게 된 실정적 동기나, 산에서 생활하는 여러 사실들이 스님들의 행적을 대표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위 시에서도 산에서 사는 한때의 사실로 그저 한가함으로 비칠 생활상이다. 집을 둘러싼 대나무 숲은 이미 기울어진 처마로 들고 있다. 그것은 검은 오죽이다. 오죽이란 일반 대나무보다는 여리가 신선스런 느낌이 든다. 아마도 흔하지 않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문화 단신

전통불교화혼식 재현 29일 육법공양회

육법공양회(회장 정승연)는 29일 11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통불교화혼식을 거행한다.

육법공양회는 복식의 경우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와 고려시대 왕가의 의상을 바탕으로 하여 팔정도 등 불교문양을 현대적인 기법으로 표현하고 의식도 학문적 고증을 거쳐 재현했다.

불교화혼식은 프라자(대표 이정희, 역동적이라는 범위) 디자인이 재현이씨가 디자인 했으며 의식은 정승연 육법공양회장이 5년전 발표한 연구논문을 토대로 새롭게 보완했다.

정승연회장은 “혼인은 불교적으로 법을 밝히고 이 세상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통불교문화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도록 복식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육법공양회는 내년 5월경 관공제식을 재현하여 불교 성년식을 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일제하 한국시 100인전

한용운 윤동주 이광수 등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시인 1백인의 육필 원고와 대표 시집들을 모은 ‘일제하 한국시 100인전’이 아트선재센터에서 내년 1월 17일까지 열린다.

이번 100인전에는 친필원고 17점과 명시집 180여권 외에 시인들의 사진 50여점도 함께 전시된다. (02)733-8945

제주 수정사터 고려 유물 발견

인왕상 음악등 불교미술사 연구자료

제주 수정사 터 건물지에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공개된 이 유물에는 국내 조각미술에서 보기 드물게 상체부분 근육을 실감나게 묘사한 인왕상(仁王像)이 음악과 있어 우리나라 고대불교미술사를 연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대 박물관 강창화학예연구사는 “석탑인지 사리함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인왕상이 새겨진 기단면석은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왕상 역시 신라시대의 분황사석탑 등 몇 개의 고대사찰에서 볼 수 있을 뿐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처음”이라고 중요성을 밝혔다. 인왕상은 사찰이 불상·불사리를 지키는 수문장으로 흔히 금강역사나 이왕(二王), 이천왕(二天王)으로 불리기도 한다.

6월부터 10월까지 수정사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제주대박물관 인왕상이 새겨진 기단면석을 비롯해 수천점의 자기류, 명문기와, 금동제품, 철제품, 중국 송나라시대의 화폐인 원대통보(1078~1085) 등을 공개했다.

■ 北서 열린 남북합동 윤이상통일음악제-추모제

“반야심경 독경소리에 묘향산도 숙연”



◇ 윤이상추모제 봉행을 위해 남북불교관계자들이 4일 평양시 법당에 모였다.

평壤평~ 2일 묘향산 자락을 휘감아도는 청정한 풍조가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윤이상통일음악회와 남북합동추모제를 위해 함께 자라한 남북불교 관계자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울려 퍼졌다. 광복절 미주본부 정산스님과 지현정사(광복절 삼일부회장), 박범훈 국립국악관현악단장, 명창 안숙선씨는 북한의 최형민스님(보현사 주지) 안숙선스님(광범사 주지) 등과 함께 10여년 동안 이어왔던 철사들을 끊어 줄을 치며 통일을 기원했다.

3~6일 윤이상통일음악회를 위해 국악관현악단을 이끌고 방북한 박범훈씨는 “스님들의 모습과 예불형식이 우리와 다르긴 했지만 열렬한 환영은 다름이 없다는 사실에 음악인으로서 기뻐”고 말했다. 안숙선씨는 “윤이상 선생님이 ‘안숙선의 남도민요’ CD를 접하고 격

려편지를 보내주시는 적이 있다. 그 인연때문인지 4일 광범사에서 열린 추모제와 음악회에 참여하는 감회가 남달랐다”며 “매 행사마다 육자배기를 비롯한 우리 창을 부르며 분단의 사실을 잊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한민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날의 감격을 전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opia.com)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동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육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듦.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4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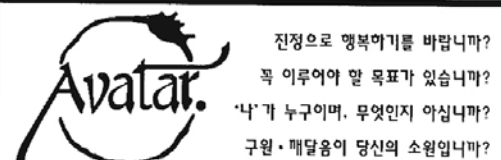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겨울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1998년 12월 2일(수)오후 7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사상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개)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뜻대로 사는 길 아·박·타



정진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규율·책임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박타를 경험하세요!

- 아박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박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박타 코스는 종교색이러한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박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탐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박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역사에 만기치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는다.”

아박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옵니다. 아박타의 이름으로..

- 아박타코스는 7-9월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박타센터에서는 매일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박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박타 센터 0523)381-1143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주 지 직 인 개인공고

■ 사찰명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위 사찰의 주지직인을 1998년 11월 17일부로 改印하였음을 공고하며 아울러 전주지가 사용한 구직인은 무효임을 공고함.

1998. 11. 17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 지 원 혜